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는  
K-푸드: 빙튀기  
K-food That  
Contains  
Korean  
Tradition  
and Culture:  
*Ppongtwigi*

이호연  
Lee Hoyeon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BFA Program,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 들어가며
- 빙튀기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 빙튀기의 종류와 특성
- 빙튀기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발전
- 나가며

지도교수: 고선정

Supervisor: Ko Sunjung

투고일 2024년 6월 30일 / 심사일 2024년 7월 22일 / 게재확정일 2024년 8월 5일 / 게재일 2024년 8월 30일  
Received Date 30 June, 2024 / Reviewed Date 22 July, 2024 / Accepted Date 5 Aug, 2024 / Publishig Date 30  
Aug, 2024 / p-ISSN. 2765-2572 / e-ISSN. 2765-7825

## 1. 들어가며

어린 시절, 내 기억 속 깊이 자리 잡은 간식거리는 뽕튀기였다. 뽕튀기는 내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접한 간식으로 처음 먹은 날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 내 일상 속에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뽕튀기 중 우리 가족은 각자 선호하는 스타일이 달랐다. 특히 아버지는 강냉이 뽕튀기를 좋아하셨다.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뽕튀기 트럭에서 천 원 지폐 몇 장을 들고 강냉이를 사 오면,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었고 그 맛과 양이 넉넉해서 모두가 배부르게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뽕튀기 트럭은 모습을 감추었고, 그 기억은 즐거운 추억으로만 생생하게 남았다. 지금은 치킨집에서 종종 강냉이와 마카로니(굴뚝 뽕튀기)를 볼 수 있다. 나는 마카로니를 좋아하는데, 강냉이보다 양이 적어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는 마카로니 뽕튀기는 치킨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간식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끔 뽕튀기 트럭이나 좌판에서 보는 커다란 봉투 속 가득 담긴 마카로니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님을 커서야 알게 됐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맛도 특별하지 않은 마카로니가 왜 종종 생각나는 걸까?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쉽게 잊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뽕튀기는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일까? 나는 왜 마카로니와 강냉이 모두를 같은 뽕튀기roman 생각했을까? 누구에게나 익숙한 간식이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할까? 옛날 간식 뽕튀기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종류와 먹는 법이 다양해지고 해외에서는 비건과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뭘까? 뽕튀기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이것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생활 문화 소재이자 K-푸드의 하나로서 뽕튀기의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 Introduction

From my childhood, a snack deeply entrenched in my memory is *Ppongtwigi*. It is a sort of fried rice snack. I don't remember the day I first had it, but I had it almost every day and have loved it for a long time. Among the various types of *Ppongtwigi*, each member of my family preferred a different style. My father especially liked the Corn style. The *Ppongtwigi* pop-up truck dropped by every Thursday. I could buy a bunch of *Ppongtwigi* with only about 1,000 won and a little more, and it was enough to share with my family. The taste was great, so everyone was able to enjoy it. But one day, the pop-up truck disappeared, and this remained vividly in my memories. These days, you can often see corn and macaroni-style *Ppongtwigi* in chicken restaurants. I prefer the macaroni style because it is smaller than the corn style, making it feel special. When I was young, I thought macaroni style was way more special because we have it only at chicken restaurants. However, it wasn't. I realized that the large bags filled with macaroni style that I occasionally see at pop-up trucks or stalls were not that special. Why do I often think of macaroni style, which is not that expensive and doesn't taste special? And why are childhood memories not easily forgotten? Since when has the *Ppongtwigi* been with us? Why did I think that macaroni and corn were all the same? What meaning do snacks familiar to everyone have to people as times change? Rather than disappearing, the old snack has become more diverse in its types and ways of eating, and why is it favored as a vegan and diet food overseas? Through this study, which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Ppongtwigi* and explores its impact on Korean society and culture, I aim to shed light on the meaning of *Ppongtwigi* as a cultural element of Korean life and as one of K-foods.

## 2. 뽕튀기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뽕튀기의 명확한 기원은 아직도 불확실하지만, 현재까지 널리 알려진 세 가지 주요 가설이 있다. 첫 번째는 1901년 알렉산더 앤더슨(Alexander Anderson) 박사가 만국박람회에서 선보인 곡물을 튀기는 기계가 일본을 통해 한국에 전해졌다는 것이다. 이 기계는 시리얼 제조를 위해 곡물을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팽창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전통 과자인 '센베이(せんべい)'를 제조하는 기계가 한국에 도입되었다는 주장이다. 센베이는 쌀이나 곡물을 이용해 만든 전통 간식으로, 이를 위한 기계가 뽕튀기 기계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동안 버려진 포탄 탄피를 활용해 곡물을 가열한 결과, 현재 뽕튀기의 원형이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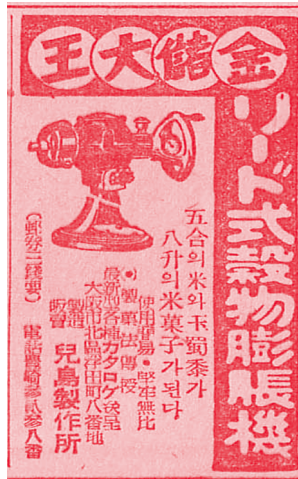
한국에서 뽕튀기 기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931년 10월 30일 자 《경성일보》 광고[그림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고문구에는 “돈벌이 모리스 곡물팽창기, 오합의 쌀이 여덟 되로 팽창하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며, 열 배 이상 부풀려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광고와 함께 소개된 곡물팽창기 삽화는 현대 뽕튀기 기계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1932년 1월 28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곡물팽창기 광고에서도 “돈 모으기의 제약”, “곡물팽창기에 불황 없다” 등의 문구가 등장해 장사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더불어 1938년 《조선일보》의 독자



[그림 1] 곡물팽창기 광고, 《경성일보》, 1931.10.30.



[그림 2] 곡물팽창기 광고, 《동아일보》, 1932.1.28.



[그림 3] 곡물팽창기 광고, 《매일신보》, 1941.9.13.

1) 「곡물팽창기 광고, 《동아일보》, 1932.4.18.

질의란에는 “곡물팽창기를 사고 싶는데 판매회사가 어디냐”라는 문의<sup>2)</sup>가 실려 당시 뽕튀기 기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여준다. 1940년대까지 기계에 대한 광고[그림3]가 지속적으로 게재되었고, 뽕튀기 장수 또한 꾸준히 늘었다. 현재까지도 뽕튀기는 국민의 추억의 간식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다.

### 3. 뽕튀기의 종류와 특성

뽕튀기는 압력을 이용해 곡물을 튀겨 만든 과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뽕튀기 기계에 곡물을 넣고 밀봉한 뒤 열을 가하면, 곡물 내부의 공기가 팽창하며 높은 압력을 받게 된다. 이때, 기계의 뚜껑을 열면 압력이 순식간에 낮아지면서 곡물이 팽창하며 ‘뽕’ 소리와 함께 터진다. [그림 4] 뽕튀기는 사용된 곡물에 따라 맛과 향, 형태가 달라지며, 현대에 들어서는 그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다. 원재료의 가공 여부에 따라 뽕튀기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곡물을 처리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을 튀겨 만든 튀밥(쌀 뽕튀기)은 곡물의 본래 맛과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다른 예로, 옥수수를 사용한 강냉이(옥수수 뽕튀기)가 있다. 강냉이는 옥수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팝콘과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옥수수의 품종이 다르다. 곡물 원형을 유지하지 않고 가공 과정을 거쳐 튀겨낸 뽕튀기도 있다. 여러 개의 곡물을 동시에 틀에 넣고 압착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원형 뽕튀기(쟁반 뽕튀기, 접시 뽕튀기 등)가 된다. 떡뽕(떡튀밥)은 떡국떡을 튀겨낸 것으로 백미를 주재료로 하는 뽕튀기이다. 소화가 쉬워 유아용 과자로 많이 소비된다. 반죽하는 과정을



[그림 4] 곡물이 ‘뽕’ 소리와 함께 터지는 장면(사진: 김영만)

거쳐 만든 뽕튀기도 있으며, 마카로니(굴뚝 뽕튀기)는 밀가루로 반죽해서 튀겨내고, 앵두콘 뽕튀기는 옥수수 반죽에 인위적인 향과 색소를 추가한 것이다. 비록 모두 ‘뽕튀기’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튀밥과 앵두콘은 외향상 완전히 다른 식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림 4] 그런데도 이들을 모두 ‘뽕튀기’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 본질이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뽕튀기의 기본 개념은 곡물을 팽창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원형이 유지되기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도 여전히 ‘뽕튀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 4. 뽕튀기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발전

뽕튀기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뽕튀기 장수들은 자원 재활용과 경제 순환에 기여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2) 「공업질의 / 곡물팽창기 제조판매점」, 《조선일보》, 1938.10.4.

이들이 당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현대에 이르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써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는 K-푸드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뽕튀기의 경제적 역할: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리

한국 사회에서 뽕튀기는 단순히 간식을 넘어서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식량 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뽕튀기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주식인 쌀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양을 부풀려 제공할 수 있는 뽕튀기는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간식이었다. 적은 양의 재료로도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했다. 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구호물자로 대량 유입된 옥수수가 뽕튀기의 주요 재료가 되면서, 옥수수를 주재료로 한 뽕튀기가 대중적인 간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게다가 전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뽕튀기 장수들은 고물 교환 시스템을 통해 경제에 이바지했다. 그들은 고물을 수집하여 뽕튀기와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집에서 쓸모없어진 고물을 가져와 뽕튀기와 맞바꾸며 자원을 재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뽕튀기 장수는 고물의 무게에 따라 적절한 양의 뽕튀기를 제공하며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을 촉진했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었고,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자원 재활용의 한 형태로 기능했다. 1963년 《동아일보》에 실린 글을 보면,

“장마가 끝나고 화창한 날 헛간을 정리하던 내가 부상 당한 비닐우산을 한 아름 꺼내 옥수수튀김과 바꾸었다. 동생 이름이



[그림 5] 뽕튀기 종류

새겨진 그 우산이 옥수수 장사로부터 큰 고물상에, 거기서 또 우산공장으로 넘어가서 재생돼 상점을 거쳐 또 우리 집에 들어온 셈이다...”<sup>3)</sup>

이는 당시 자원 재활용과 경제 순환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반면 “엄마 몰래 바가지에 쌀을 담아 튀겨 먹던 일”<sup>4)</sup>이나 고무신과 같이 사용하는 물건을 뽕튀기로 교환해 먹고 엄마한테 혼나던 기억은 뽕튀기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개인의 추억과 일상 속 소소한 기쁨을 제공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뽕튀기가 사회적 연대감과 개인의

- 3) 김성희, 「되돌아온 비닐 우산」, 《동아일보》, 1963.7.4.; 김대홍, “한때 간식권력 장악했던 ‘뽕이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4022](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4022) 에서 재인용, (2024.6.16.)
- 4) 「뽕튀기 귀를 막아라 ‘뽕’… 골목 동심 부풀린 ‘요술기계’», 《경향신문》, 1985.12.5.





[그림 6] 공중전화카드

추억으로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2) 뽕튀기 놀이문화와 공동체

과거 한국 사회에서 뽕튀기 기계는 단순히 간식을 만드는 도구를 넘어 중요한 놀이 도구이자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아이들은 뽕튀기 기계의 작동 과정에서 나는 ‘뽕’ 소리와 그에 따른 흥미로운 변화를 경험하며 큰 매력을 느꼈고, 이는 놀이문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뽕튀기 장수들이 시장이나 마을을 돌며 외치는 ‘뽕이요’와 기계의 큰 ‘뽕’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모이게 했다.

기계가 작동하기 전, 아이들은 “귀를 막아라”는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반응[그림 4]하며 놀이의 재미를 더했다. 이러한 반응은 집단 놀이의 특성을 나타내며, 친구들 사이에 연대감을 형성했다. 이는 과거 어린아이들이 방구차를 쫓아다니며 노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뽕’ 소리가 우연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놀이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놀이에 재미를 더하며, 아이들은 이 과정을 즐겨워했다. 뽕튀기 기계 주변은 이러한 놀이 요소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뽕튀기 장수 옆에 쫓르르 앉아 있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땅바닥에 떨어진 강냉이를 줍느라 바빴다.”<sup>5)</sup> 이는 공중전화 카드에도 그려지는 추억의 장면[그림 6]이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기계의 안정성이 떨어져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예를 들어, 1932년 평안남도 덕천군에서는 옥수수를 튀기던 곡물 팽창기가 폭발해 뽕튀기 장수가 사망하고, 구경하던 7세

5) 「우리 마음속의 어머니… 누이… 가슴 찡한 향수」, 《동아일보》, 1995.5.12.

소년이 큰 화상을 입었다.<sup>6)</sup> 1938년에는 돌아가는 곡물 팽창기를 구경하던 어린아이들이 기계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계를 건드리다가 큰불이 나 9세 소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sup>7)</sup> 이러한 사고들은 뽕튀기가 당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자 놀이였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음을 시사한다.<sup>8)</sup> 당시 아이들은 핸드폰과 같은 현대적인 놀이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뽕튀기 장수 앞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약속처럼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별다른 놀이 도구 없이도 뽕튀기 기계 주변은 놀이 공간으로 기능했으며, 이는 단순한 간식 판매를 넘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며, 어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했다. 현대의 자극적인 놀이 매체가 등장하기 전까지 뽕튀기는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과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 3) 뽕튀기: 소리와 언어의 유산

뽕튀기는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언어적 관습과 표현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뽕튀기 장수의 ‘뽕이요’와 기계에서 나는 ‘뽕’ 소리는 일종의 청각적 마케팅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언어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1950년 6·25 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한 김원일의 장편소설 『불의 제전』에는 “옛장수의 가위 소리, 강냉이 장수의 튀밥 튀기는 대포 같은 소리...”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처럼 과거 뽕튀기 기계는 소음이 매우 컸고, 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

되었다. 당시 마케팅 환경이 단순했던 시절, 뽕튀기의 ‘뽕’ 소리는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시선을 끌었다. 이는 현대의 오감 마케팅과 유사하게, 당시 독특한 마케팅 기법으로 많은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이렇듯 과거의 뽕튀기 장수는 청각적 자극을 통해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발휘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자원 재활용 시스템이 정립되고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뽕튀기 장수가 고물을 수집하여 간식과 교환하는 방식은 사라졌다. 현대의 다양한 시청각적 자극이 넘쳐나는 마케팅 환경에서는 뽕튀기의 ‘뽕’ 소리가 가지는 마케팅 효과가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뽕튀기는 한국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표현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뽕튀기한다’는 표현은 어떤 사실이나 물건을 과장하여 크게 부풀리는 일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음식 이름이 그 자체로 동사화되어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는 뽕튀기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뽕이요’는 과거 뽕튀기 장수가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기 위해 외치던 말에서 유래되었다. ‘뽕이요’를 외치면 사람들은 귀를 막았지만, 가끔 기계가 불발되면 사람들은 허탈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뽕’이라는 단어가 ‘거짓’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1980년대 초반 어린이들 사이에서 거짓말의 은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뽕튀기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형태나 맛보다는 뽕튀기 기계를 거친 후 부풀려진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과거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쌀을 부풀려 양을 늘려주는 기계인 뽕튀기 기계는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발명품으로

6) 「팽창기 폭발」, 《조선일보》, 1933.2.10.

7) 「휘발유에 인화」, 《조선일보》, 1938.2.15.

8) 김영환, 『모던 씨크 명량』, 문학동네, 2016 참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강렬한 인상은 우리 언어 속에 깊이 박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뽕튀기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한국 사회의 언어적 관습과 표현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뽕튀기가 사회와 문화에 미친 깊은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5. 나가며

뽕튀기는 근대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사적 산물이다. 해방 이후 한국의 일상에 뿌리내린 뽕튀기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뽕튀기는 한국전쟁 이후, 1950-60년대의 빈곤한 시기에 서민 간식으로 자리 잡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뽕튀기 기계에서 발생하는 ‘뽕’ 소리와 곡물이 몇 배로 부풀어 오르는 과정은 단순히 간식 제조를 넘어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한국의 놀이문화와 경제, 언어 문화까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물질문화와 디자인사의 관점에서 ‘뽕튀기’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서민 간식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는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아버지의 추억에서부터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이르기 까지 뽕튀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뽕튀기’는 과거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유산을 이어받아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일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뽕튀기가 단순한 간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상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

## 참고문헌

- 김명환, (2016), 『모던 씨크 명랑』, 문학동네
- 「곡물팽창기 광고」, 《동아일보》, 1932.4.18.
- 「공업질의 / 곡물팽창기 제조판매점」, 《조선일보》, 1938.10.4.
- 김성희, 「되돌아온 비닐 우산」, 《동아일보》, 1963.7.4.; 김대홍, “한때 간식권력 장악했던 “뽕이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4022](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4022) 에서
- 「우리 마음속의 어머니… 누이… 가슴 찡한 향수」, 《동아일보》, 1995.5.12.
- 「뽕튀기 귀를 막아라 「뽕」… 골목 동심 부풀린 “요술기계”」, 《경향신문》, 1985.12.5.
- 「팽창기 폭발」, 《조선일보》, 1933.2.10.
- 「휘발유에 인화」, 《조선일보》, 1938.2.15.